

‘동방의 신비’ 유럽에 소개한 최초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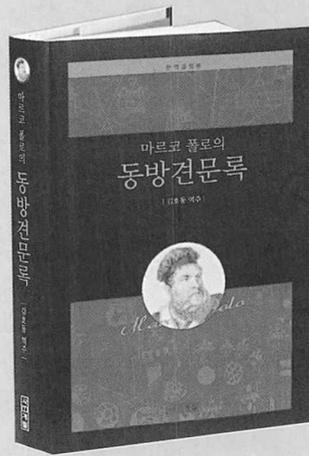
사계절,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완역본 출간해

유럽사회에 아시아를 충격적으로 소개, 지식인 계층에 일대 문화적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 완역·출간됐다(사계절 펴냄). 우리말로 옮기고 주석을 단 이는 중앙아시아사를 전공한 김호동 교수(서울대 동양사학과). 한때 서양에서 《성경》 다음으로 잘 팔리는 책이었던 《동방견문록》은 13세기 몽골제국의 지배 아래 놓여 있던 아시아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긴요한 책으로 평가받아 왔다.

13세기 아시아의 역사와 풍속 기록한 박물지

베니스에서 무역업을 하던 상인의 아들인 마르코 폴로가 아시아행 선단에 몸을 실은 것은 1271년.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거치는 3년 6개월의 모험 끝에 쿠빌라이의 여름 수도인 산두(上都)에 도착한다. 쿠빌라이의 신임을 받은 마르코 폴로 일행은 17년간 중국에 머물면서 “중요한 임무와 먼곳으로의 임무”를 부여받아 사신이나 사절로 활약했다. 마르코 폴로가 중국생활을 청산하고 인도양을 거쳐 베니스로 되돌아 온 것은 1295년. 《동방견문록》은 이 기간에 마르코 폴로가 아시아에서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동방견문록》이 다루고 있는 지역은 실로 광범하다. 북쪽으로는 ‘암흑의 지방’이라 부르는 극지대에서 남쪽으로는 자바와 수마트라 및 잔지바르와 모가디슈에 이른다. 또한 서쪽으로는 아나톨리아 고원을, 동쪽으로는 일본까지 망라하고 있다. 《동방견문록》은 전체 8편 232개장으로 이뤄졌는데, 각 지역을 묘사할 때 반드시 기술하고 있는 공통사항이 있다. 그 첫째는 방위와 거리를 기록한 점이다. 한 도시에서 다음 도시까지 어느 방향으로 며칠 거리에 있는지 밝히고 있다. 두번째는 각 지역 주민들의 생활상에 대한 설명이다. 어느 종교를 믿고 있는지, 주식과 생업은 무



김호동 역주
사계절/A5신/582면/26,000원

엇인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누구에게 예속됐는지 기록했다. 마지막으로는 각 지방의 특기할 만한 물산과 동식물을 소개하고 있다. 《동방견문록》이 ‘지리지·박물지·민족지’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충실한 번역과 자세한 주석

사계절판 《동방견문록》은 ‘완역결정본’을 지향하고 있다. 옮긴이가 번역저본으로 삼은 것은 모울과 펠리오의 영역본. 원본은 이미 유실된 상황이라 원본의 형태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판본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이 번역본은 이 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프랑스지리학회본을 저본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도 18종의 중요한 사본들을 일일이 대조해 프랑스지리학회본에 없는 내용을 보충하고 그 출처를 밝히고 있어 현재로서는 이보다 더 정확한 ‘결정판’은 없는 실정.

상세한 주석도 이전의 국내 번역본에서 찾아보기 힘든 부분이다. 원문에 잘못 기록된 인명과 지명의 경우, 그 정확한 음가나 현재의 지명을 주석을 통해 바로잡았다. 그리고 책에 기록된 각종 역사적 사건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일반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원문에 없는 삽화나 사진을 실은 것도 사계절판 《동방견문록》의 장점이다. 옮긴이의 말대로, 누구나 한번쯤 제목은 들어봤지만 정작 읽어본 사람은 흔치 않던 고전을 쉽게 읽을 수 있는 체제로 편집해 출간했다는 점에 각별한 의미가 있는 책이다. — 이권우 기자



코스닥에 「다음」이 있다면 디자인에는 「다름」이 있습니다

디자인의 상한가 다름이 치겠습니다

뉴 밀레니엄 시대에는 디자인이 리드합니다.
제대로 된 디자인을 만나지 못하면 하한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한가로 올라가는 노하우, 다름에 있습니다.

다음기획 121-220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95-1번지 5층
TEL. 325-6260~1 fax. 325-0944
E-mail. darumman@uriel.net, darumman@hotmail.com

출판디자인의 모든것 복디자인(단행본·학습지·잡지·사내외보), 광고, 홍보물(카탈로그·브로슈어·패키지·P.O.P·포스터·캘린더), 일러스트